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윤리와 사상 9번 문항 해설(오답률 5위)

Made by. 윤리와 사상

9.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	하늘은 백성이 듣고 보는 것으로부터 듣고 보며, 하늘은 백성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좋아하고 싫어한다. 따라서 통치자는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왕도(王道)를 시행해야 한다.
을 :	하늘의 운행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요(堯) 임금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걸(桀) 임금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인간이 도를 따라서 어기지 않는다면 하늘도 화를 입히지 못한다. 하늘의 운행과 인간의 일은 서로 별개이다.

<보 기>

ㄱ. 갑 : 하늘은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하니 민심이 곧 천심이다.
ㄴ. 을 : 하늘은 성인(聖人)의 도를 따르는 무위(無爲)한 존재이다.
ㄷ. 을 : 하늘은 예(禮)에 따라 사는 백성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
ㄹ. 갑과 을 : 하늘이 부여한 마음을 되찾아야 성인이 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정답: ②

[갑: 맹자, 을: 순자]
정답률: 78%

■ 제시문 분석

갑은 맹자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왕도(王道)정치가 그가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도 정치만으로 무조건 맹자만으로 확정지을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순자는 예와 예치(禮治)를 강조하였다. 순자는 예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나라를 다스릴 때 질서가 유지된다고 보았으며, 예(禮)를 근본으로 삼는 통치를 왕도(王道)로 규정하였다.
> [2024학년도 수능특강 윤리와 사상]

이처럼 순자나 다른 사상가 또한 왕도(王道)라는 워딩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맹자에게 있어서 왕도 정치가 키워드인 것은 맞다.

> [맹자의 왕도 정치]
>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 즉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에 기반을 둔 정치, 이러한 정치는 사단(四端)에 기반을 둔 정치 또는 인과 의에 기반을 둔 정치라고 할 수도 있음
> [2024학년도 수능특강 윤리와 사상]

올해 수능특강에서 맹자의 왕도 정치를 주석으로 달아두어 사상가의 키워드임을 알려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과과정 내부에서 맹자임을 파악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여민동락(與民同樂)'이다. 이는 군주가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뜻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보면 파악할 수 있다.

> 맹자는 공자가 생존했던 춘추 시대보다 더욱 혼란해진 전국 시대의 상황 속에서 백성이 왕이나 사직보다 더 중요하다는 민본(民本) 의식을 제시하였으며, 왕이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왕도(王道) 정치를 저버리고 왕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교학사 윤리와 사상 교과서]

> 맹자는 군주가 백성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정치를 통해 왕도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023학년도 수능완성 윤리와 사상 해설지]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맹자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을이 순자인 이유는 마지막 줄만 읽어도 드러난다. "하늘의 운행과 인간의 일은 서로 별개이다." 이 문장은 순자의 '천인분이(天人分二)' 사상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기도 하다.

> 자연관: 공자, 맹자와 달리 하늘을 물리적인 자연 현상으로 여겼고, 자연 현상과 인간의 일은 구분된다[天人分二(천인분이)]고 봄
> [순자, 2024학년도 수능완성 윤리와 사상]

그리고 요순 시대라고 불렸던 요, 순임금과 걸임금 등이 언급되는 제시문은 보통 유교의 제시문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아두면 편하다.

다음 제시문을 찾기 편했던 이유는 또 있다. 제시문이 연계되었기 때문이다.

> 하늘과 사람의 구분에 밝으면 곧 그를 지인(至人)이라 말할 수 있다. 잘 다스려지거나 어지러워지게 하는 것은 하늘인가? 해, 달, 별이 운행되고 있는 현상은 명군인 우임금 때나 폭군인 걸왕 때나 같았다. 그러나 우임금 때는 잘 다스려졌고 걸왕 때는 어지러웠으니, 잘 다스려지거나 어지러워지게 하는 것은 하늘이 아니다. "하늘이 높은 산을 만들었고, 문왕은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렸네."라는 시는 이것을 뜻한다.
> [순자, 2024학년도 수능완성 윤리와 사상]

> 하늘의 운행은 항상 변함이 없으니 요임금 같은 선인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걸임금 같은 악인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잘 다스림으로써 이에 대응하면 길(吉)한 것이요, 혼란으로써 이에 대응하면 흉(凶)한 것이다. 그러므로 천도와 인도의 분별에 밝은 사람을 가히 지인(至人)이라고 한다. 하늘과 더불어서는 직분을 다투지 않는다. 하늘에는 하늘의 절기가 있고 땅에는 땅의 재화가 있으며,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다스리는 정치가 있다.
> [순자, 2024학년도 수능완성 윤리와 사상]

그러므로 문제를 보고 도가의 문체인가 싶다가도 익숙한 느낌을 받고 순자임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다.

■ 선지 분석

> ㄱ. 맹자: 하늘은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하니 민심이 곧 천심이다. (O)

-> 일단 "하늘은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하니"라는 부분은 제시문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 "하늘은 백성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좋아하고 싫어한다."
> [맹자, 2024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그리고 맹자는 '민본주의'를 주장한 사상가로,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고 민심을 존중하는 도덕적 정치를 추구한다. 즉,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향하고 통치권의 근거를 백성에 두는 것이다.

>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社稷)이 그다음이며, 임금은 가벼운 것이다. 백성의 신임을 얻어야 천지가 되고, 천자의 신임을 얻어야 제후가 되며, 제후의 신임을 얻어야 대부가 된다.
> [맹자, 「맹자」]

이에 따라 맹자는 민심(民心)이 곧 천심(天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올해 수능완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맹자는 민심을 곧 천심으로 보고, 군주는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024학년도 수능완성 윤리와 사상 해설지]

따라서 ㄱ선지는 옳은 선지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ㄴ. 순자 : 하늘은 성인(聖人)의 도를 따르는 무위(無爲)한 존재이다. (X)

> ㄷ. 순자 : 하늘은 예(禮)에 따라 사는 백성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 (O)

-> 하늘의 운행은 변함없이 일정한 것이고, 인위적이지 않다. 하늘이 성인(聖人)의 도를 따르는 것, 혹은 인간과 감응하는 것은 각자의 직분에 어긋나는 것이며, 천인분이(天人分二)와 맞지 않는 것이다.

> 사람의 본성과 감정(情)을 좇으면 반드시 쟁탈이 일어나 분수를 무너뜨리고 이치를 어지럽혀 난폭함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승과 법도에 따르는 교화와 예의의 교도가 있어야 한다.
> [순자, 2024학년도 수능특강 윤리와 사상]

사람에게 스승[師]과 법도[法]가 있다면 큰 보배를 가진 것과 같고 그것이 없다면 큰 재앙과 같다. 사람에게 스승과 법도가 없다면 본성을 존중하게 되고 그것이 있다면 노력을 쌓는 것[積]을 존중하게 된다. 스승과 법도는 노력을 쌓는 데서 얻는 것이지 본성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순자,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윤리와 사상]

하늘은 인간사회와 독립적이다. 하늘은 인간이 추위를 싫어한다고 해서 겨울을 없애지 않는 것이 그 예시가 될 것이다. 이처럼 종교와 신비주의의 "천인감응(天人感應)"은 완전히 허구적이다.

자연계의 운행(天行: 天道)은 그 자체의 법칙(常)이 있은즉, 결코 사회에 선인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사회에 악인이 있어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안정과 태평을 이룩하여 천도에 응하면 길하고, 혼란으로써 천도에 응하면 흉할 따름이다. (중략) 따라서 하늘과 인간 간의 직분(분별)을 명확히 인식한다면 가히 지인(至人)이라고 할 수 있다.

[풍우란, 「중국철학사」]

따라서 순자의 하늘에 대한 관점은 '자연천(自然天)'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하늘은 선인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

ㄹ. 맹자와 순자 : 하늘이 부여한 마음을 되찾아야 성인이 될 수 있다. (X)

-> 다음 선지는 매우 쉽다. 하늘이 부여한 마음을 되찾아야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순자가 아니기에 틀린 것이다.

일단 순자는 본성이 하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것은 옳다.

순자는 본성이란 사람이 나면서부터 타고난 것으로 하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으며, 왕수인은 본성을 하늘이 명한 것으로 보았다.

[2024학년도 수능특강 윤리와 사상 해설지]

그러나 순자는 이러한 본성은 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고 남을 질투, 시기하고 미워하며 이목(耳目)의 욕망을 가지고 있기에 나쁘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간단하게, 올해 수능특강의 주석에 나와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천인분이(天人分二)]
하늘(天)과 인간(人)은 엄연히 분리된(分) 두 가지(二)일 뿐이라는 사유. 순자의 하늘은 인간에게 선한 본성과 도덕규범을 부여하는 실체가 아니며, 인간의 선악에 감응하는 것도 아님.

[2024학년도 수능특강 윤리와 사상]

이처럼 다음 선지는 순자의 주장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9번 문제의 정답은 맹자의 왕도(王道)정치에 대한 이해와 순자의 천인분이(天人分二)에 관한 이해를 통해 풀 수 있는 문항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